

제 115호 5. 자신감 가지기

"교원이 교육개혁의 대상이냐 주체냐?"하는 문제로 시끌벅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육부를 없애면 개혁이 저절로 이루어지리라"며 교육부가 개혁의 주체가 아니고 오히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뉘기도 한참 되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학부모의 말을 들어보면 마땅히 교원이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원의 하소연을 듣다보면 이제는 교육부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의 말을 들으면 또 다른 개혁 대상이 나타나고 맙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토론의 주제가 잘 못되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불만합니다. "누가 사족(蛇足)을 잘라버렸나?"하며 열띤 토론을 벌인다면 얼마나 우스울까요? 개혁의 대상과 주체는 둘다 사족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것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부질없고 허무한 일은 없겠지요.

또, 혹시 우리가 개혁과 혁명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혁명에는 주체와 대상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불란서혁명의 주체는 혈벗은 국민이며 대상은 호화스런 귀족들이었습니다. 러시아혁명의 주체는 노동자며 대상은 자본가였습니다. 중국혁명의 주체는 인민이었으며 대상은 외세였습니다. 그러나 개혁에는 주체와 대상이 구분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을 근대세력으로 탈바꿈시킨 메이지유신(개혁)에는 숙청 대상이 없었습니다. 권력이 지방에서 중앙으로 이동하기는 했지만 사회의 질서를 갑자기 뒤집어 엎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권력이 동마져 싸움으로 빼앗는 윈-루즈의 방식이 아니고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개혁에는 모두가 주체인 동시에 모두가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주체냐 대상이냐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혁명은 남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라면 개혁은 손가락을 자신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을 자신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은 자신감에서 비롯합니다.

<<편집 코너>>

지난 5호에 걸쳐 연재된 "자신감 가지기" 시리즈를 이번 호로 끝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제가 구차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로부터 가장 많은 코멘트를 받은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아래 의 글도 혼자, 또는 저희 교수들만 읽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한국의 일간지에도 투고를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